

“광신판지 승리할 때까지 경기지부 함께한다”

29일, 경기지부 결의대회... “노조탄압 중단, 생활임금 인상, 대양그룹 회장 결단하라”

노조 경기지부가 8월 29일 서울 서초동 대양제지그룹 본사 앞에서 ‘광신판지분회 투쟁 승리를 위한 경기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광신판지분회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지 않는 대양제지그룹을 규탄하고, 광신판지분회 인정과 단협해지 통보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 경기지부 경기지역금속지회 광신판지 노동자들은 뜻을 모아 올해 3월 기업노조를 버리고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사측은 조합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노무담당 관리이사를 채용해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등 노조 파괴에 나섰다. 사측은 7월 20일 교섭에서 기존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사측은 복수노조 설립시도와 단협 무력화, 교섭 공전이라는 노조파괴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다.

정구양 노조 경기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고 노사 간 원만한 해결을 바



랐다. 대양제지 자본은 있던 단협을 해지하고 시간 끌기 교섭만 하고 있다”라며 “지난 11차 교섭에서 우리는 마지막 수정요구안을 던졌다. 즉각 단협해지를 철회하고 수정제시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내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호 노조 광신판지분회장은 “사업장 발전을 위해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장시간 노동을 견뎌야 한다. 사측은 우리에게 여전히 최저 생활을 할 수 없는 임금을 주며 일을 시키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정은호 분회장은 “이제

우리는 달라졌다. 회사의 외압과 탄압에 맞서 단합해 질리게 싸우고 있다. 절대 깨지지 않는 조직으로 강하게 일어섰다”라고 강조했다.

도기선 노조 광신판지분회 부분회장은 “삼성이 민주노조를 인정했는데 어째서 대양그룹은 민주노조를 왜하시키려 혈안인지 모르겠다”라며 “주주 일가만 배를 불리지 말고,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돌아보라. 대양그룹이 결단을 내려 모두 상생하는 길을 찾자”라고 호소했다.

정구양 노조 경기지부장, 이규선 경기지역금속지회장, 정은호 광신판지분회장은 대양그룹 본사에 들어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회사 임원과 면담했다. 지부는 ▲대양그룹 회장의 결단 ▲단체협약해지 철회 ▲노조탄압 즉각 중단 ▲상생 ▲집중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명박이 쌍용차 노동자를 죽였다”

경찰청 진상조사위 ‘쌍용차 강제진압 사건’ 결과 발표...이명박 직접 지시로 강경 진압 실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경찰이 2009년 이명박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 쌍용차 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강경 진압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진상조사위는 “2009년 8월 4일과 5일 양일간 벌인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 작전은 청와대가 개별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경찰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작전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과잉

행시해 파업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점거 농성 강제진압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 행사에 대한 사과 ▲손해 배상청구 소송 취하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정부에 대해 ▲파해 노동자와 가족에

대해 사과와 명예회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진상조사위 발표 뒤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지부-법국민대책위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 ▲문제인 대통령 직접 사과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통한 ‘쌍용차 노조외해 비밀문서’ 조사 등을 촉구했다.

“80명 조합원은 코닝정밀소재를 지키는 소금”

29일, 민주노조 시수 충남지부 결의대회... “코닝 자본, 삼성 장학생 천안지청과 결탁해 노조 탄압”

노조 충남지부와 코닝정밀소재지회 조합원들이 8월 29일 파업을 벌이고 충남 아산시 당정면 코닝정밀소재 2단지 정문 앞에서 ‘코닝정밀소재지회 민주노조 시수를 위한 충남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와 코닝정밀소재지회 조합원들은 코닝 자본에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7월 1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코닝정밀소재지회의 금속노조 전환 총회 내용을 트집 잡아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코닝정밀소재지회가 금속노조임을 확인했지만 코닝자본은 “분쟁이 정리되기 전까지 교섭할 수 없다”라며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지회는 2013년 삼성 자본이 코닝정밀소재지분을 미국 코닝에 전부 매각한 이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노사문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코

닝정밀소재 노동자들은 삼성 자본의 끈아풀들이 말로만 노조를 인정하자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코닝 자본은 삼성 장학생이 있는 노동부 천안지청과 결탁해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승렬 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 나서 “코닝 자본은 조합원이 80명이라고 만민하게 보면 안 된다. 1만 2천 충남지부와 18만 금속노조는 코닝지회를 엄호해 반드시 민주노조를 지켜낼 것이다”라며 격려했다.

이정옥 코닝정밀소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염분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 금속노조 코닝지회 80명 조합원이 바로 그런 소금이다”라며 “금속노조와 함께 두려움 없이 함께 싸우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코닝정밀소재와 삼성디스플레이 공단을 돌며 행진했다. 조합원들은 교대근무를 하며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조 할 권리를 알리고 가입을 독려했다.

김학남 지회장은 “삼성 자본이 코닝을 떠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는 코닝의 최대주주다. 코닝 자본은 모든 노무관리를 삼성의 지시를 받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김학남 지회장은 “코닝정밀소재지회는 합법 지위를 가진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자본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부당노동행위다”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들은 민주노조 시수 결의와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마음을 적은 리본을 코닝정밀소재 공장 철망에 달면서 결의대회를 마쳤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전국 곳곳 설립총회 열어

23일 부산양산·28일 서울·9월 6일 전북지회 설립... “당당히 총회 여는 우리, 포기하지 않는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 서울지회가 8월 28일 오후 경기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18만 금속노조 소속조직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조직확대의 깃발을 올렸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총회 축사에서 “늦었지만 동지들을 금속노조 18만 조합원과 함께 환영한다. 판매연대 서울지회 창립총회를 축하드린다. 금속노조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며 폭우를 뚫고 서울 경기 충청에서 온 총회 참가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박경선 노조 서울지부장은 격려사에서 “서울지부는 현재 SK엔기와 포르쉐지회 등 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대우자동차판매 등과 함께 투쟁한 역사가 있어 어느 지부보다 판매노동자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라며 “판매연대의 투쟁과 교섭 성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조 자동차판매연대 서울지회는 총회에서 ▲지회 규칙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판매연대 서울지회는 초대 임원으로 지회장

김선영 수석부지회장 서원근 사무장 윤상원을 선출하고 지회 규칙에 따라 김영수·최병락 부지회장을 임명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이다. 절대로 포기하지도 지지 않았다. 법의 판결대로 당당한 노동자로 대접받는 세상을 위해 투쟁을 조직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을 전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